

# 전세난이 쏘아올린 집값 상승...무주택자 조바심 자극할까

1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0.17%...7년 만에 '최대' 비싼 전세 살 바엔 내 집 마련하자...외곽·비규제지역 상승세 부동산 전문가 "집값 상승폭 더 확대되면 조바심 자극할 수도"

“조바심이 나오. 한 순간에 집값이 오르는 것 보니 마음이 불안하네요. 괜히 청약 도전하겠다고 전세에 살고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서 매수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속상하네요. 지금이라도 사야하는 걸까요?”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셋값이 상승하자 서울 외곽 지역, 수도권 비규제 지역, 지방 광역시 등의 매매값이 꿈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집값 상승세가 무주택자들의 조바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매물이 실종되면서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2013년 10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매주 0.10% 안팎으로 상승하다 지난 8월 첫째 주 0.20%로 치솟았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승폭도 더 커졌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수도권도 지난 주 0.23%에서 이번 주 0.2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하나'는 고민이 담긴 질문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온다. 대부분의 댓글은 '실 거주 한 채는 있어야 한다' '지금 가장 싼 가격이다' 등의 매수를 권하는 내용이다.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실제 집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급격하게 오른 전셋값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나 수도권 비규

제지역, 지방 광역시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게 되자 수요가 몰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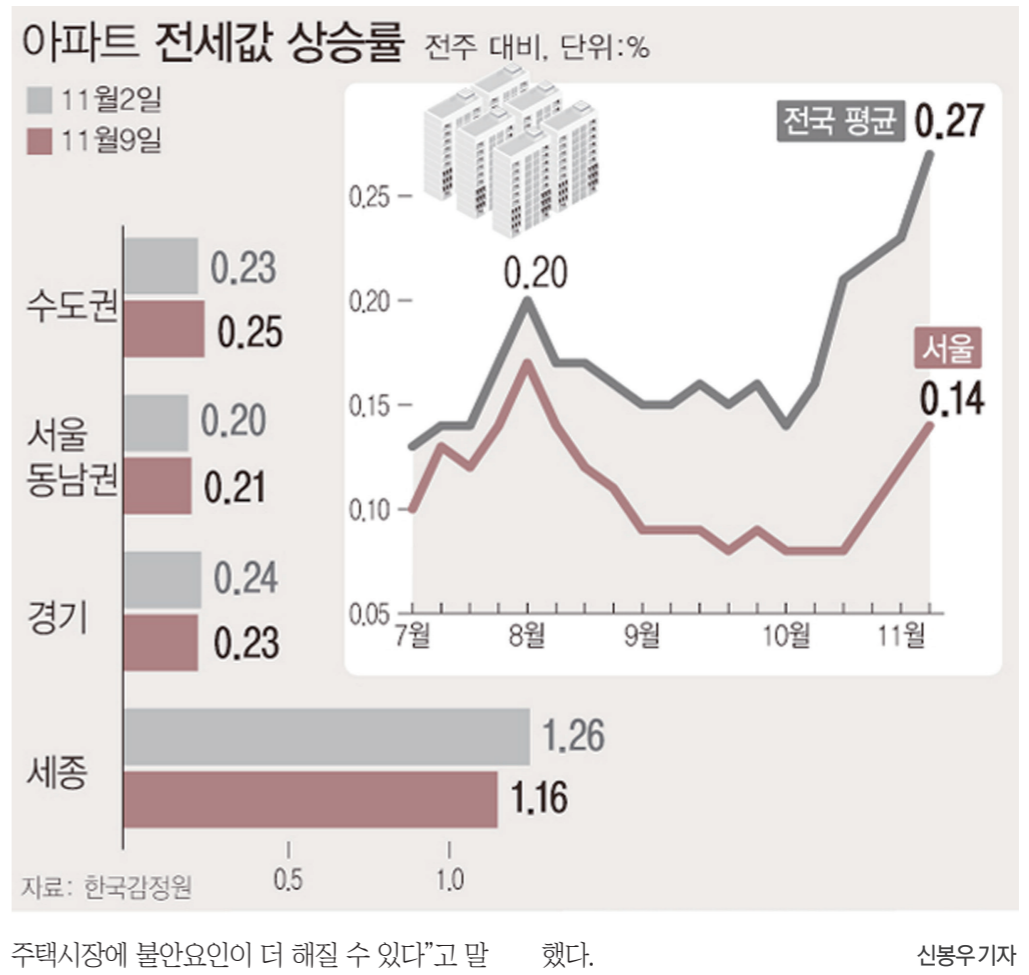
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7%)대비 오펜폭이 커졌다. 지난 6월 넷째 주(0.22%)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2% 올랐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랑구와 강북구가 0.0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광진, 강서, 관악, 노원구의 상승률도 0.03%로 평균을 상회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 하나인 김포시의 아파트값은 지난주(1.94%)에 이어 이번 주 1.91%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 아파트값도 이번 주 0.27% 올라 감정원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5대광역시 중 대구, 대전, 부산 아파트값은 은 각각 1.11%, 0.67%, 0.56% 오르며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세수요가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며 "집값 상승폭이 더 확대될 경우 추가 상승에 대한 조바심으로 시장을 관망하던 내 집 마련 수요까지 자극할 수 있어



주택시장에 불안요인이 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봉우기자

## 광주 10월 생산·제조업 활기...구인시장에 '훈풍'

산업분야 활기 찾으며 구인시장 기대감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한파가 지속 중인 가운데 광주지역은 채용을 재개하는 기업들이 차츰 늘면서 구인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고 있다.

15일 광주·전남 취업포털 사랑방구인구직(job.sarangbang.com)이 올해 광주지역 업체별 구인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 한 달간 사랑방구인구직에 게재된 구인광고 전체 건수는 7만3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게재 건수는 전월(4만6320건) 대비 51.8%, 지난해 10월(6만4619건) 대비 8.8% 늘어난 수치이다.

업종별로는 생산·제조업 분야의 구인광고 게재 건수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10월 생산·제조업 분야의 구인광고 게재 건수는 7874건으로 전월(6300건) 대비 24.9% 늘었으며, 지난해 10월(5921건)과 비교하면 1953건이 많아 32.9% 증가했다.

이처럼 구인시장에 불고 있는 훈풍의 요인

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내수 소비시장이 차츰 되살아나면서 늘어난 지역 내 생산·수출량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광주지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한 1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에서도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각각 16.7%, 18.8% 증가했다.

품목별론 자동차(32.5%), 전기장비(12.5%), 고무·플라스틱(21.1%) 등 순으로 생산이 늘었다. 출하는 자동차(35.4%), 고무·플라스틱(25.1%), 전기장비(6.8%) 업종 순으로 많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배달 등 비대면 소비 패턴 증가에 따른 운전·배달 직종 채용도 증가했다.

올해 10월 해당 직종의 구인광고는 총 7315건으로 전년 동기(5834건) 대비 25.4% 늘었다.

기업들이 채용을 본격 재개하면서 광주지역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지표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0월 광주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1만3000명 이상 감소했고 실업자 수는 1만명이 늘어 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49만7000명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랑방구인구직 관계자는 "악화된 지역 내 산업 활동이 수출증가 등으로 최근 다시 활기를 띠면서 고용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생산·제조 분야 실적 향상은 일자리 확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간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김민정기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걸림돌은?

한진칼 대주주 3자 연합·노조 반대 거셀 듯...독과점 논란도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빅딜(Big Deal·대규모 거래)'이 성사될 경우 자산 40조원, 매출 20조원을 보유한 세계 10위권 초대형 국제항공사로 도약할 전망이다.

하지만 한진칼 최대주주인 3자 연합과 양 항공사 노조의 반발, 일자리 축소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대, 독과점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에 자금을 지원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지난 13일 공식했다.

양측 모두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르면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논의한다. 그 뒤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이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산업은행이 인수 자금을 투자하고, 한진칼은 이 돈으로 금호산업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사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항공업계 재편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쳐 대형항공사(FSC·Full Service Carrier) 1개를 제대로 키우자는 것이 산업은행의 생각이었다"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올해 4월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아시아나항공에 총 3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양 항공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단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을 지원해야 하고 아시아나항공도 지원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됐다. 차라리 하나로 합쳐 자금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공업 노하우가



풍부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서 중점 노선을 정리하면 수익성이 개선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9월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합병(M&A)이 결렬된 이후 산업은행의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항공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만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자본잠식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외국 사례를 대한항공에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이뤄진다면 자산 40조원, 매출이 19조6000억원에 이르는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의 매출액은 12조6834억원, 아시아나항공은 6조9658억원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173대, 아시아나는 86대의 기체를 보유 중이다. 양사를 합친 기체(259대)는 경쟁사인 에어프랑스(225대)를 제치게 된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허 교수는 "세계 항공업계의 흐름을 보면 몸집 키우기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M&A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중국의 3대 국영 항공사(중국국제항공·동방항공·남방항공)와 중동 지역 항공사들에 뒤쳐졌다"며 "그들은 규모를 키워왔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우리 항공사들도 경쟁력을 높이려면 몸집 키우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희기자

## 롤러블서 슬라이드까지...좌우로 펼치는 'LG 상소문폰' 출시 준비

돌돌 말린 형태 때문에 일명 '상소문폰'으로도 불려...내년 초 공개



LG전자가 최근 '롤러블'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좌우로 펼쳐지는 새로운 폼팩터(기기형태)의 스마트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돌돌 말린 형태 때문에 일명 '상소문폰'으로도 불리우는 LG 롤러블폰은 내년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일 국내 특허청에 'LG 롤러블(LG Rollable)'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지난 2월 유럽특허청(EUIPO)에도 'LG 롤러블' 'LG 슬라이드' 이름으로 상표권 출원 신청을 했다.

LG전자는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와 함께 롤러블폰 시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에는 신제품 'LG 윈' 공개 행사 막바지에 롤러블폰 티저(맛보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LG전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LG

전자 롤러블폰은 추가 디스플레이가 '리자모양'으로 말려있다가 한쪽을 잡아당기면 넓게 퍼졌다.

국내 IT 커뮤니티에서 소비자들은 LG 롤러블폰을 '상소문 에디션'이라고 부르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앞서 LG전자는 '롤-슬라이드(Roll-slide) 모바일 단말기'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8월 미국 특허청(USPTO)에 특허도 출원했다.

올해 9월 24일 특허가 등록됐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됐다.

화면을 좌우 양쪽으로 당기면 화면 부분이 100% 확대되고, 한쪽만 당기면 일부만 확대된다.

화면이 열리는 구조를 위해 톱니 바퀴가 사용되는데, 탄성 요소 덕분에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 화면이 의도치 않게 말리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슬라이드 잠금'도 설치했다.

한편 롤러블 스마트폰은 폴더블폰(접는 폰)에서 진화된 폼팩터인 만큼, 최신 폴더블폰인 '삼성 갤럭시Z폴드2'(239만8000원)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200만원대 중반대 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선욱기자